

한반도 첫 수도 고창소식

10
2019
제 45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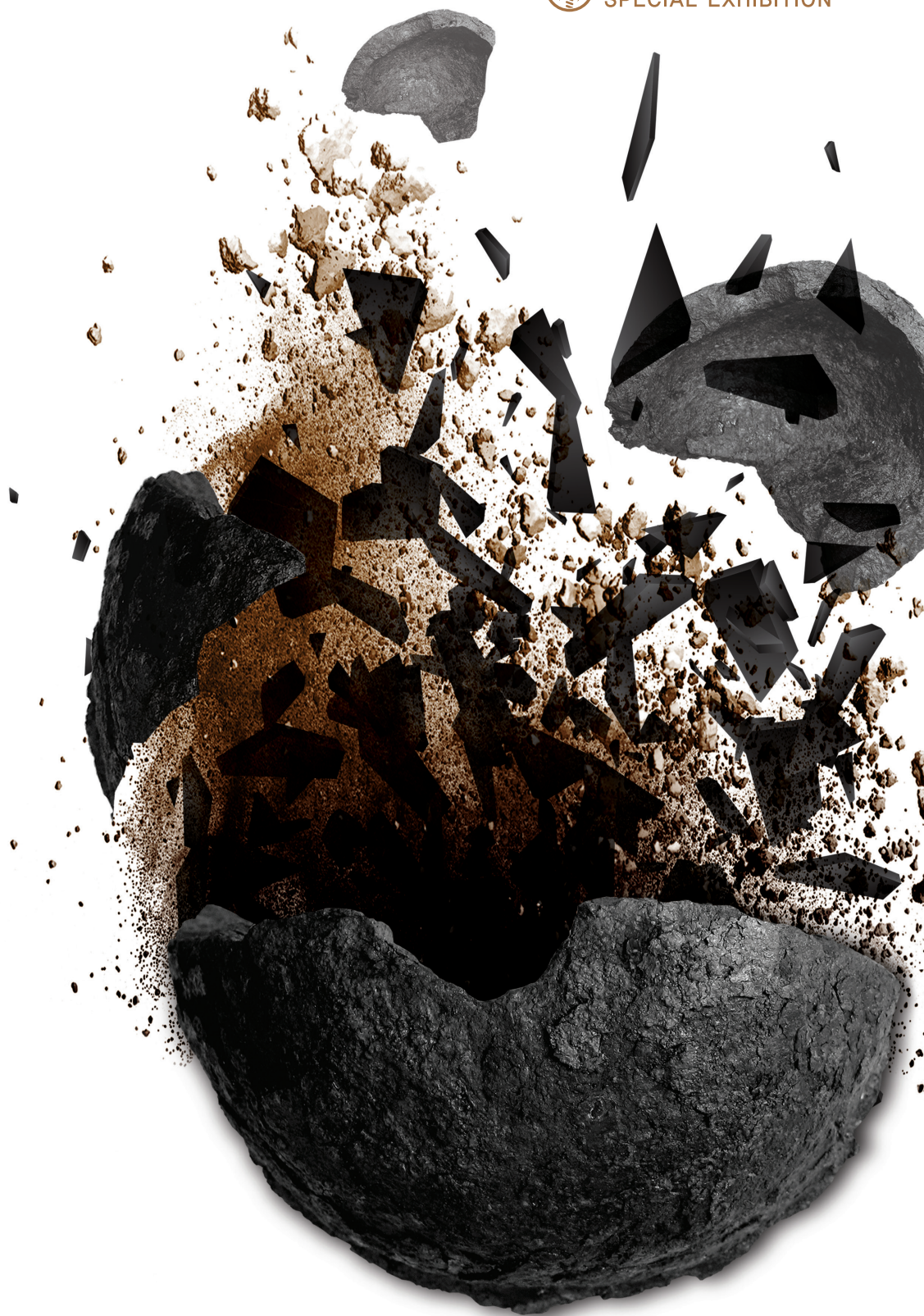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비격진천뢰 Bigeokjinchaeoloe - Time Bomb of the Joseon Dynasty



2019 조선무기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2019.
10. 25. 금 - 12. 22. 일
고창 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실

2019. 11. 15. 금
비격진천뢰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
고창 고인돌박물관
입체영상관



고창군
GOCHANG COUNTY



국립진주박물관
Jinju National Museum



財團法人 湖南文化財研究院

제46회 고창모양성제, 대한민국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 품격 빛났다



오색빛깔의 고운 한복 입고 답성놀이, 강강술래 “전통과 현대,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1000여명의 부녀자들이 머리에 돌을 이고 성곽을 조심스럽게 걷는다. 오색빛깔의 한복과 돌이끼 낀 오래된 성곽, 곱게 뽀은 소나무가 높고 푸른 가을하늘과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예술 작품이 된다. 성 밟기 이후에는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수월래 노래와 함께 원을 그리며 돌면서 하나된 모습을 연출 해 장관을 이룬다. 축성 566주년을 기념하는 제46회 고창모양성제가 ‘역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10월3일부터 닷새간 고창읍성 일원에서 펼쳐졌다. 고창모양성제는 3000년전 고인돌 시대부터 한반도의 문명사적인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대표축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문화관광축제에 4년 연속 유망축제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모양성제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고창읍성 축성에 참여했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등

17개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으로 시작됐다. 특히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재연은 1000여 명의 부녀자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참여해 장관을 연출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 온 사진작가들과 관광객들도 가을 정취를 배경으로 한복과 민복을 차려입은 답성놀이 행렬과 강강술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모양성(고창읍성의 옛 이름)은 조선 단종원년인 1453년에 당시 호남도민들이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 쌓았다. 부녀자가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 번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번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번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7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군민의 날’과 ‘군민체육대회’에선 군민과 재외군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단체줄넘기 등 체육경기를 하며 화합을 다졌다.



초가을 밤마실 낭만 ‘고창 문화재 야행’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고 저 멀리 고요한 어둠이 다가오면, 고창의 아름다운 밤이 시작된다. 달빛이 스며드는 성곽과 밤거리에는 낭만과 감성이 피어오른다.

‘2019고창 문화재 야행(夜行)’이 9월20일, 21일 밤 열렸다. 둘레 1684m의 고창읍성 곳곳의 성루와 성문에 야간 조명이 비쳐 아름다운 것은 물론 성곽길 굽이굽이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개막공연인 ‘기원의 거울’은 지난해에 이어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 회원들과 고창군민 400여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오페레타 공연으로 펼쳐지면서 주민화합의 장이자 역사문화의 진수를 선보였던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기도 드렸던 정성을 상징하는 창작뮤지컬 ‘정화수 치성’과 1803년 정월대보름에서부터 시작된 지역공동체 전통문화 축제인 ‘민속 대동놀이’ 등의 대표프로그램을 통해 고창 문화재 야행만의 맛을 살렸다.



수(水)많은 즐거움, 2019 대한민국온천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고창 석정온천으로 떠나는 따뜻한 가족여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3일 동안 관광객 2만여 명이 방문해 온천욕을 즐기고,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온천축제는 고창군과 행정안전부, 한국온천협회가 공동주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온천축제는 ‘리마인드 프로포즈’, ‘온천 3종경기’, ‘온천수 캠페인쇼’, ‘달빛 버스킹’, ‘석정힐 CC마실길 걷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관람객들은 석정온천관광단지 은행나무 아래서 족욕체험과 함께 버스킹 공연을 즐겼다.

고창 석정온천 게르마늄 온천수에서 목욕을 즐기면, 질병에 대한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대세는 바로 나! 고창 핑크물리에서 인생샷 남겨봐요

선운산을 붉게 물들였던 꽃무릇이 지고, 질마재길 노란 국화가 피기 전. 새하얀 메밀꽃과 함께 시월의 꽃으로 핑크물리가 떠오르고 있다.

고창조경수협회와 꽃객프로젝트(귀농인 농장)가 한 달간 고창핑크물리 축제를 열고 있다. 핑크물리의 우리이름은 분홍쥐꼬리새로 ‘꽃 이삭이 쥐꼬리를 닮은 풀’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었다. 안개처럼 뿌옇고 화사한 모습이 포근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좋은 사진 배경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가을맞이 웨딩사진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싶은 연인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한 예비신부는 “직접 와서 보니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예쁘다”며 “하얀 웨딩드레스와 핑크물리, 파란가을 하늘이 어우러져 최고의 사진이 탄생할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 찾아가는 길_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로 307



인기배우 공유, 고창 주요 여행지 화보 공개

인기배우 공유가 고창군 곳곳을 찾아다니며 찍은 가을 화보를 공개했다.

잘 알려진 읍성과 선운사 뿐 아니라 고창옹기, 삼양사 염전 등 지역주민들도 ‘여기가 어딘가’ 할 정도로 멋진 공간을 담아냈다.

코오롱패션의 브랜드인 ‘에피그램’은 지방 소도시가 지닌 감성적인 문화, 유무형적 자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패션라이프 스타일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엔 고창군과 협업을 통해 고창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보여줬다.

화보는 ‘고창에서 살아보기’를 테마로 고창의 선운사, 고창읍성 등 잘 알려진 곳 뿐 아니라 책마을해리, 송림마을, 고창옹기, 용기슈퍼, 삼양사염전, 서해안 바람공원, 들뢰풍경, 상하농원 등 고창만의 스토리가 담긴 장소 11곳을 보여줬다.





현장에 답이 있다! 주요사업장 방문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9월 18일 제26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9월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의안처리결과를 보면 ▲2019년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의 건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유치권 소멸 담보제공을 위한 '지급보증서' 발급 의결의 건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시설 사용 및 운영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복분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산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16 개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또한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5박 7일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다녀온 고창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였다. 조규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의회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제266회 임시회 의안 처리결과

소 관 위원회	의안 번호	의 안 명	제출부서	비 고
합 계		8 건		
자치행정 위 원 회 (1)	169	2019년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의 건	울력행정과	원안가결
	164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생경제과	원안가결
	170	고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생경제과	원안가결
	175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유치권 소멸 담보제공을 위한 지급보증서 발급 의결의 건	상생경제과	원안가결
	172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난안전과	원안가결
	165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	원안가결
	171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건설도시과	원안가결
산업건설 위 원 회 (7)	167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원안가결

태풍 ‘링링’ 피해 농가에 따뜻한 손길을 전해

고창군 의회사무과는 지난 9월 17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은 성내면 항월마을을 피해농가를 방문해 태풍으로 도복된 벼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과 주변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하며 작지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넸다.



정이 넘치는 추석명절, 사랑 나눔 장보기 행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9월 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창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대형유통업체 등의 확산으로 판매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들을 돕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고창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조규철 의장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군민 여러분께서도 질 좋은 농·특산물과 차려용품을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활성화를 위한 비교 견학 나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8월 29일에서 30일까지 2일간 괴산고추축제와 음성청결고추축제 등을 견학하여 우리군 축제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괴산고추축제는 8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된 축제로 괴산군의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된 고추를 직판장을 통해 할인 판매하는 등 고추농가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세계고추 전시회 등 이색 전시 및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음성청결고추축제는 고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판매된 고추를 즉석으로 갈아주는 등의 특색있는 고추 축제를 만들었다. 타지자체 축제를 둘러본 의원들은 “생태자원과 문화유산 등이 풍부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있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톡톡

고창군이 추석 전 총 29억원(1인당 28만5000원) 상당의 농민수당을 지난 7월 발행한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그동안 전남과 인근 지역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을 찾는 외지인들이 읍내 식당과 카페, 상점 등에서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즐겁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현재 읍성과 박물관 유료 관광객에겐 입장료 중 2000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장 회의 참석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고창지역 기관·단체에서도 지역화폐 도입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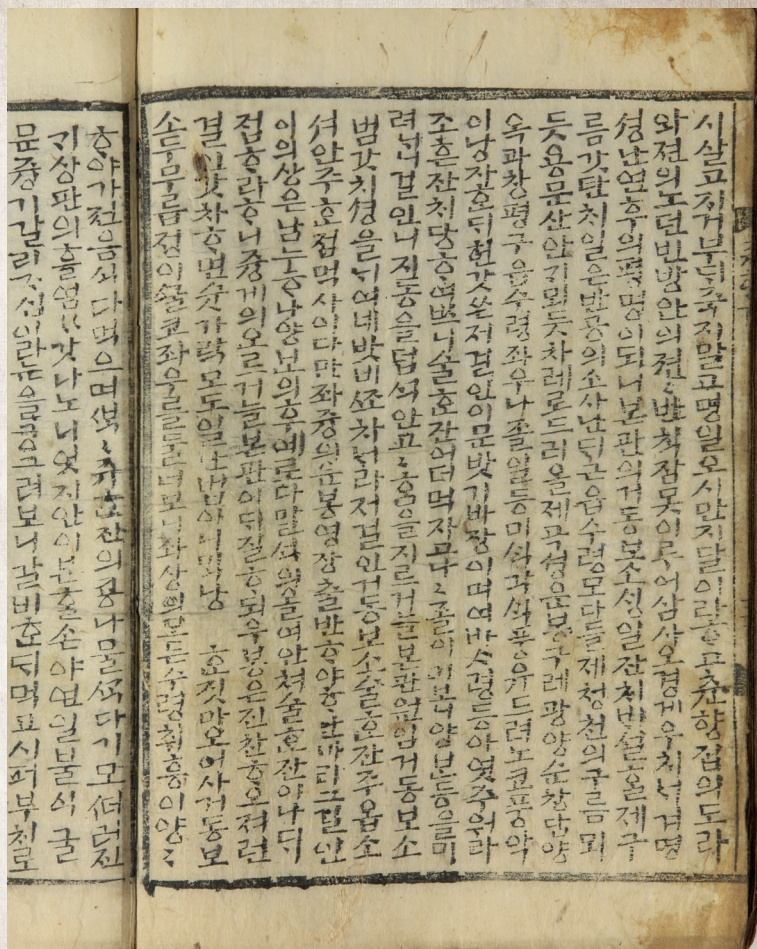
동리 신재호 판소리 서체, 고창군 관인으로 쓴다



고창군이 기존 꼬불꼬불하게 구부러져 알기 어려웠던 관인을 알기 쉽게 바꾼다. 특히 동리 신재호 선생의 판소리 서체를 차용해 '대한민국 판소리의 성지' 면모를 과시할 예정이다.

관인의 글자체 선정은 여러 역사학자, 탁본연구가, 완판본 연구자들의 자문과 내부 토론을 거쳤다. 고창의 문화유산·역사성 등을 고려해 보기 좋고 알기 쉬운 글꼴인 동리 신재호 선생의 판소리 춘향가체를 관인에 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후 관내 기관단체와 서예협회, 여러 문화·예술인 등의 의견수렴과 SNS를 통한 국민과 공직자의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관인은 총 118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관인 개각 사업은 동리 신재호 선생의 판소리 원고의 집자(集字), 디지털 작업, 자형의 수정 및 날글자 제작, 이미지 변환, 인고 디자인을 거쳐 고창 판소리의 혼이 담긴 관인으로 탄생했다. 관인 조각은 국내 인장 제작 및 수제도장 전문가인 석정 장운식 선생이 조각·개각했다.

장운식 선생은 “고창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는 만큼 긴장이 많이 됐다. 도장을 받는 고창군민 모두가 잘 되라는 긍정의 미학과 고창 판소리의 혼을 관인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생활체조·요가 모임, 전북체조경연대회 휩쓸다

고창군 생활체조·요가 모임인 '올로올로팀'과 '고창모양성동아리'가 지난 9월28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린 2019전북체조경연대회에 참가해 각각 장원상과 금상을 수상했다. 올로올로팀은 안무와 표현, 음악성, 창의성, 정확성 등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창군은 2개 출전팀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며 여성생활체육 절대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고창군 체조모임은 대회 전날까지도 고창청소년수련관에 모여 합동연습을 하는 등 이번 대회를 위해 혹독하게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과줍고, 벼 일으켜 세우고’ 태풍 피해농가 일손돕기 울력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한 과수원. 갓 들어온 신규 공무원부터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나이 지긋한 과장들까지 쫓그려 앉아 배 줍기에 한창이었다.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단 냄새에 날아든 모기떼와 싸움하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양동이를 가득가득 채웠다. 농장주는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배즙으로 가공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일손이 없어 엄두를 못 냈었다”며 “군청 직원들이 도와준 덕분에 수월해졌다”고 고마워했다. 마을에선 쓰러진 벼를 일으켜 묶는 작업이 진행됐다. 무더위를 견디고 탐스러운 알곡으로 가득 찼던 벼들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농부는 “자식같이 키운 벼를 한순간에 잃고 나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허탈할 뿐이다”며 한탄했다. 군청 직원들은 묵묵히 대어섯 포기의 벼를 일으켜 세우고, 한 다발씩 묶으며 농민의 마음을 위로했다. 군청 직원들은 “피해규모가 너무 커 마음이 아프다”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장학재단 올해 기탁금 1억원 돌파

(재)고창군장학재단에 ‘고창사람키우기’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건설업체인 (유)명지엔지니어링 유제영 대표가 고창군청을 찾아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유 대표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란 우리 고창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사회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으로 (재)고창군장학재단에 올해에만 50여명, 1억원의 장학금이 기탁됐다. 이는 1998년 장학재단 설립이후 현재까지 장학금 조성 총액 2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고창군 장학재단 관계자는 “민선 7기 고창군의 ‘고창사람 키우기’에 많은 군민들과 기관·사회단체·기업인들이 호응해 주고 있다”며 “인물의 도시 고창을 빛나게 하는 저력이다”고 강조했다.

· 문의_고창군 장학재단(063-560-8616)



햅쌀밥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창군 4-H연합회가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쌀과 십시일반 모금한 백미 660kg을 복지기관인 고창푸드마켓에 전달했다. 성내면 대흥농원 노영열씨도 백미(10kg) 30포를 기부했고, 애향운동본부 성내지부에서 백미(20kg) 5포를 전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한결RPC(대표 박종대)와 사임당푸드영농조합법인(대표 조해주)에서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각각 백미10kg 100포(300만원 상당)를 고창군에 전달했다. 고창군 심원면 농가들은 직접 농사지은 햅쌀을 모아 400kg(20kg 20포)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면에 기탁하기도 했다.



부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고창군 부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환, 윤명수)가 제35회 부안면민의날 행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지사협은 이날 캠페인에서 생활고를 겪거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거나, 발견 시 부안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적극 알려 줄 것을 홍보했다.



고창군 새마을부녀회 나눔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 열어

고창군 새마을부녀회(회장 문원애)가 고창새마을회관에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나눔의 고추장 담그기’행사를 진행했다. 새마을부녀회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700 세대에게 전달할 고추장 700통(1통/3kg)을 마련해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했다. 문원애 부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눔의 고추장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부죽자염(父竹子鹽) 부자죽염(父子竹鹽) 한국로하스식품

(유) 한국로하스식품

Korea Lohas Food

대표 신민규



‘세기 밥이 보약’이라는 옛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교훈삼아 우리가 먹는 식품에 건강, 자연, 전통을 담아 유익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기업이 있다. 2006년에 설립해 고창군 부안면에 위치한 한국로하스식품이다. 한국로하스식품의 선운산죽염은 대나무처럼 선비정신을 가진 부(父), 부친의 뜻을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잇는 자(子). 부자(父子)가 함께 만든 죽염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건강, 자연, 전통을 지키며 재창조하는 최고의 식품기업이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의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된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과 담양과 지리산 일대에서 자생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왕대를 엄선하여 품질이 뛰어난 죽염을 생산하고 있다. 죽염 이외에도 죽염을 이용한 전통 발효식품(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분말 등), 죽염비누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로하스식품의 선운산죽염은 고창의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800℃이상의 온도에서 구워 천일염의 간수와 불순물이 제거된 소금이다.

· 홈페이지_ <http://www.jugyeom.com> · 연락처_ 063-561-5811



고창군 일자리 지원 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연번	업체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주)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1	청소원	월급 180~20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창읍
2	(주)서부현대서비스	1	경리사무원	월급 175만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고창읍
3	고창황토배기 고구마연합(영)	3	지게차운전원	성수기/07:00~21:00 일급 13만원 비성수기/08:00~18:00 일급10만원 근무시간 변동가능함	채용시	고수면
4	고창황토배기 고구마연합(영)	1	회계경리사무원	월급 25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수면
5	연경전자	1	영업납품사원	월급 200~230만원 주5일근무/08:00~19:00	채용시	고수면
6	라운푸드시스템(주)	10	생산직	시급 8,350원/주5일근무 (일요일~목요일)/ 08:00~17:00 연장근무,출퇴근 차량가능자	10.15	부안면
7	라운푸드시스템(주)	2	사무직(남,여)	월급 180만원 주5일근무/08:00~17:00	10.15	부안면
8	참바다 영어조합법인	1	생산직	시급 8,350원/주5일근무 08:30~18:00(전업가능하신분 지원)	채용시	부안면
9	이앤지푸드(주)	2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부안면
10	이앤지푸드(주)	3	생산종간관리자	연봉2,800~4,000만원 주5일근무/08:30~18:00	11.19	부안면
11	도솔식품	1	농산물가공포장 생산직	월급 180만원/상여금100% 주5일근무/08:30~17:30	채용시	아산면
12	세영개발	1	호퍼차기사님	월250만원 주6일근무/07:00~18:00	채용시	성송면

구인·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일자리 상담·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T.063-560-2366)

10월 고창의 인물 오익창



▶오익창 선생을 모신 사당 죽산사

▶전북 유형문화재 사호집

오익창(吳益昌 1557~1635)은 고창군 대산면 장동에서 태어나 10세 전에 경전을 외웠다. 1594년(선조 27) 흥년으로 큰 기근이 생기자 사재를 풀어 많은 인명을 구제했다. 오익창은 언제나 성리학에 마음을 두고, 밤을 낮으로 삼아 경전을 탐독했고, 더욱이 정주(程朱·송나라 유학자인 정호·정이 형제와 주자를 일컬음)의 글을 좋아하여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순신부대를 지원해 명량해전을 조선수군의 승리로 이끄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이괄(李适)의 난’에는 아들 오전으로 하여금 군량을 모아 근왕(勤王, 임금을 위하여 나라 일에 힘써)하게 하였고, 정묘호란에도 군량을 모아 강화도로 보냈다. 1635년(인조 13) 8월 14일 심원에서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호암마을 뒷산에 있으며, 저서로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42호로 지정된 ‘사호집(沙湖集)’ 3권 2책이 있다. 희귀본으로서의 판본적 의미와 임진왜란 당시 전투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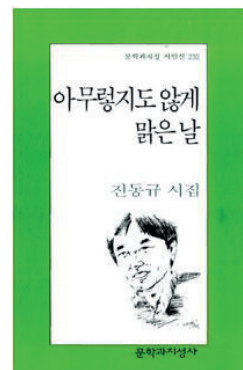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아무런지도 않게 맑은 날’
진동규 지음/문학과지성사 1999
군립도서관 811.6-진250

우리 고창군 상하면 출신 진동규 시인이 1999년에 발표해 꾸준히 사랑받는 시집입니다. 진 시인은 시집을 내면서 “내 이웃들의 이야기랑 또 우리 동네 풍광들, 그리고 들길에서 만났던 들꽃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남자주인공 현빈이 읽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 시인은 삶을 시에 음영있게 녹여내는 풍류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8년 ‘시와 의식’을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꿈에 쫓기며’, ‘민들레야 민들레야’, ‘아무런지도 않게 맑은 날’, ‘구시포 노랑 조개’, 시곡으로 ‘일어서는 돌’, ‘자국눈’ 등이 있습니다.



【 제35회 고창군 군민의 장 】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이끈 힘 제35회 고창군 군민의 장 수여식 열려

고창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최고의 상인 '군민의 장' 수여식이 10월7일 열렸다. 문화체육장의 김영돈씨는 고창출신 불화장(佛畵匠)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과 전통미술 부분 대상을 수상해 고창 문화예술인의 위상을 높였다. 산업근로장 오동열씨는 고창에서 자란 농산물을 활용해 포기김치, 맛김치, 깍두기를 생산해 전통발효식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켰다. 애향장 김광중씨는 재경고창군민회 13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고창인큰잔치'와 같은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통해 군민화합에 앞장섰다. 공익장 이운갑씨는 1985년 제33대 고창군수로 부임해 3년여간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위민 봉사 행정에 애썼다. 특히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이번 공익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창군수는 "군민의 장은 고창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최고의 상으로, 그동안 한반도 첫수도 고창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선정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문화체육장 김영돈



산업근로장 오동열



애향장 김광중



공익장 이운갑



고창 맛의 자존심 올해 농식품 명인에 라희술씨 선정

고창군농식품 명인 심사위원회에서 염류 분야 최고 권위자인 라희술(69)씨를 2019년 고창군 농식품 명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라희술 명인은 6대째 도자기를 만들어 오고 있는 도공이다. 고창의 품질 좋은 황토를 선별해 모양을 만들고, 1000도의 고온으로 굽는다. 이어 고창 지역 염전에서 5월에 채취한 소금의 간수를 제거한 후 황토 웅기에 담아 800도의 고온으로 12~20시간 가마에 구워서 명품소금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렇게 만든 소금은 짠맛과 쓴맛이 덜하여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난다. 특히 굽는 과정에서 천일염에 함유된 비소·납·카드뮴·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제거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건강 소금이 되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평가와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우석대학교 박수진 교수는 "묵묵히 지역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명인들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정된 명인에게 고창군 농식품 명인 현판증정, 마케팅 등이 우선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시작된 '고창군 농식품 명인'에는 박영두(염류), 안문규(식초류), 김효심(장류)씨 등이 선정 됐다.



2019. 10. 24(목)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

관람료 | 일반 3,000원/학생 1,500원 공연문의 | 063)560-8041~2

|주최·주관|

고창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